

멸종위기 눈표범, 티베트 스님 수호천사 자처

조지 샬러 등 보존생물학자들, 3년간 연구 조사서 밝혀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눈표범(snow leopard) 보호에 큰 몫을 해내고 있으며, 그 역할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권위 있는 학술 저널에 게재된다.

NBC NEWS는 9월 6일 판테라(Panthera Corporation, '표범보존회')의 보도 자료를 인용, "조지 샬러(George Schaller·판테라 부회장) 박사 등의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3년간 진행한 눈표범 조사 보고서가 세계적인 생물학 저널인 <보존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지에 게재된다"며 "이 보고서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티베트 고원에서 눈표범의 서식지 및 개체 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이 눈표범을 보존하는 데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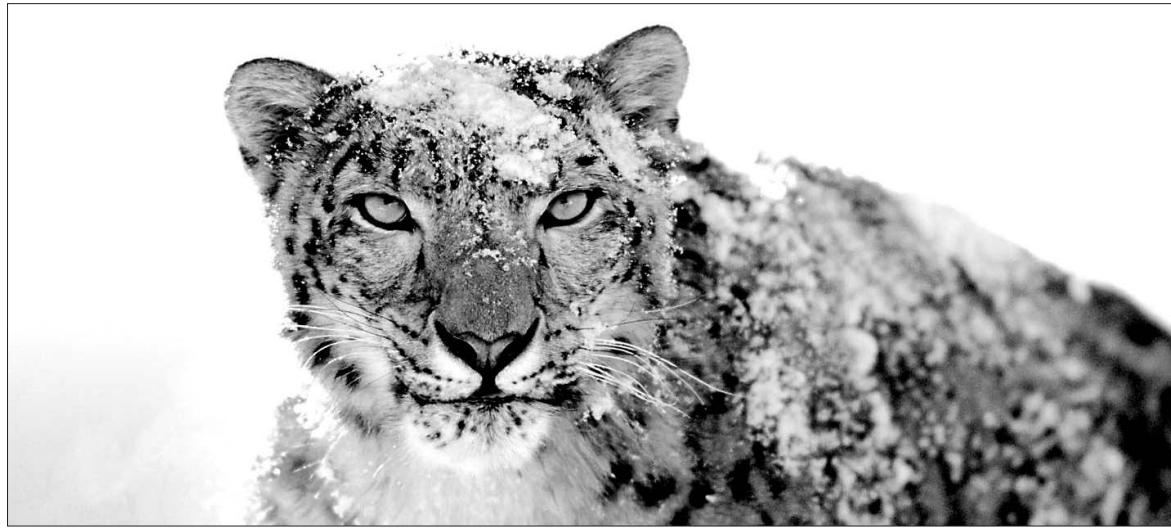
지역의 호랑이, 눈표범, 살쥬이 등과 같은 '대형 고양이 과 동물(Big Cat)'을 조사하는 '아시아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 조지 샬러·톰 맥컬티(Tom McCarthy·판테라 수석연구원) 박사와 리 주안(Li Juan, 북경대) 교수 등에게 '눈표범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표범 보존에 생각하지도 못한 지원군을 찾았다"고 전제한 조지 샬러 박사는 "눈표범의 사원 주변 밀렵 막으려 순찰 세계적 생물학저널에 등재 '생물학보존 분야 비전제시'"

사원 주변 밀렵 막으려 순찰 세계적 생물학저널에 등재 "생물학보존 분야 비전제시"

60%는 중국, 특히 티베트 고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식지 대부분에서 티베트 사원을 찾을 수 있었다"며 "특히, 스님들은 부처님을 모신 사원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밀렵을 막고자 순찰을 도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톰 맥컬티 박사는 "중국의 칭하이(Qinghai) 성 상지양우안(Sanjiang yuan) 지역의 눈표범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에서는 서식지 반경 5km



멸종 위기에 놓인 눈표범.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의 토종으로, '백색의 은둔자', '고산의 은둔자'라고 불린다. 눈표범은 지난 20년간 모피를 얻고 약재로 쓰기 위한 밀렵으로, 현재 5000여 마리 정도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내에 5~9곳의 사원이 파악됐다"며 "이곳의 스님 대부분 인근 주민들 위해 '유·무정물 모두에게 사랑·존경·연민을 갖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이는 양을 키우는 주민의 '눈표범 보복 사냥'을 미연에 막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고산지대 주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외투나 숄(shawl) 등의 주원료인 양모(wool)를 파는 일이다. 양은 고산지대 특성상 방목되는데, 문제는 눈표범의 주 먹잇감이 양이고, 이로 인해 매년 양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눈표범은 주민들에게 눈엣가시나 다름없고, '보복'

사냥감인 셈이다. "눈표범 보존을 위해서는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라고 전제한 리 주안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4곳의 티베트 사원과 눈표범 보존 프로젝트를 선형적으로 진행한 결과, 눈표범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줄어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눈표범의 생존 지속이라는 문제는 푸는 단초"라며 "4곳의 티베트 사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144가구의 주민 80%는 '생명의 장엄함을 강조한 스님들의 말을 듣고 나서, 눈표범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NBC NEWS는 조지 샬러 박사의 말을 인용, "이 보고서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가치가 보존 생물학 분야에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지 샬러·톰 맥컬티 박사와 리 주안 교수 등이 공동 조사, 발표한 이번 보고서 'Role of Tibetan Buddhist Monasteries in Snow Leopard Conservation(눈표범 보존에 티베트 불교 사원의 역할)'은 9월 중 <보존 생물학>지의 온라인 도서판에 게재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구글 강사로 나선 틱낫한 스님

3개월 일정으로 美 순회... '깨어있음' 주제로



틱낫한 스님이 3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한다. 스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고자 구글 등 IT기업이 스님을 초청했다. 틱낫한 스님은 첨단기기와 현대인들의 삶의 조화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구글이 틱낫한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은 9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 강연을 할 예정이다. 스님은 알아차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온 혁신과 통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미 2011년 틱낫한 스님 방문 후 알아차림을 위한 내면 검색(search inside yourself) 명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구글 엔지니어들과 티베트 선승들이 함께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자신감·동기부여·공감능력·리더십·사회성기술 연승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을 위해 명상 공간도 늘렸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글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재 3개월 일정으로 북아메리카에 머물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이번에도 20명이 넘는 실리콘밸리의 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깨어있음'에 대한 스님의 지혜를 전해줄 예정이다. 어떻게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비롯, 알아차림을 통한 디자인 개발 등 일상과 깨어있음의 조화에 관한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스님은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알아차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스마트폰 등을 버릴 필요는 없다. 대신 선한 목적으로 현대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령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앱 개발과 숫자 대신 '지금'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이번 북미순회에서 틱낫한 스님은 CEO들에게 현대인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나 앱 개발에 집중해 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에서 가질 특강에서도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구글의 지능과 선한의지(good will)를 써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얼마 전 아시아 투어를 마친 스님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토론토, 뉴욕,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는 일주일 수련 프로그램은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 신청자만 1000명 이상이다. 뉴욕, 보스턴, 파사데나에서의 대중강연도 예정돼 있다. 이미 뉴욕에서는 스님의 필체를 담은 작품, 캘리그래피(calligraphy, 손으로 그린 그림판) 전도 전시되고 있다.

"기업들, 1등 욕심내기보다 오히려 목표 놓는 연습 필요"

가디언지는 "월가를 점령하라"로 대표되는 반자본주의 등 세계를 잠식해가는 세계화, 물질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건지려면 집단적 깨어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 틱 스님의 책은 미국에서 2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스님의 업적은 이미 많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추앙받아 온 지 오래다. 세계은행총재 짐용김(Jim Yong Kim)은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우리 내면에 갖게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틱낫한 스님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기도 했다.

백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마천루 속 고급 쇼핑몰서 펼쳐는 '불교 수행'

日, 단기 불교 카페 운영

도쿄역 앞에 위치한 38층 높이의 고급 쇼핑센터 신마루노우치 빌딩.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들과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현대적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스님이라면?

천문관, 지우개, 밴드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표교하는 일본은 확실히 그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듯하다. 이번에는 도쿄시내, 그것도 자본과 소비, 욕망이 집약된 '작은 백화점'을 공략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단기 프로젝트성 불교 카페를 개점한 것.

일본 신관과 불교의 근거지 외카야마(Wakayama)현의 산 이름을 딴 코야산 카페(Koyasan Cafe), 100여 개의 매장이 모여 있는 신마

루노우치 빌딩 중에서도 정점이라 할 수 있는 7층 레스토랑에 자리 잡았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사람들은 채식식단에 맞춘 음식과 음료수를 먹으며 염불을 듣고 사경을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거나 딱딱한 삶에 조언이 필요하다면 스님과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도쿄변화기에 불교식 카페를 연 이유에 대해 코야산 카페의 홍보 담당 아부 쿠니히코(Kunihiko Yabu)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했다. 주 고객은 20~30대 여성들. 지난해와 제작된 다녀간 사람들은 8천 명에 이른다.

아부 스님은 "어떤 식으로든 불교



도쿄 변화기에 불교 카페가 생겼다.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최고급 쇼핑몰에 자리한 코야산 카페에서는 채식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좌) 스님들의 염불을 들을 수도 있다.(우)

와 가까워진다는 데 의의가 있죠. 삶을 온전히 사는 법을 일러주는 데 불교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불교는 각종 의식과 관련된 '화석화'된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웰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장례식의 90% 이상은 불교식이며 이는 종교라기보다는 관습으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불교식 카페와 바를 만들며 생활밀착형 표교를 지향해 온 것도 일본 불교의 자구책이었던 셈이다. 덕분에 최근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

불교의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만 있죠, 스님들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 입장으로 보자면 절보다 카페에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백현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가수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하!!!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할매에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